

새로운 도약 위한 '2030 비전' 선포

전북생진원, 개원 20주년 맞아 고객이 먼저 찾는 농생명 바이오 혁신성장 주도 의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정립한 2030 비전 및 미션을 공유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2000년 10월 설립된 생진원은 '식품생물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로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전라북도 소재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 사업 발굴,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창업·전문인력 양성 및 생산·분산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부 기술거래 전문기관 지정,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표창, 도 출연기관 최초 연구소기업 설립,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4년 연

속 최우수 등급 획득 등 기관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날 생진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해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나아가기 위한 기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새로운 2030비전과 미션을 선정했으며,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 직원들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새로운 비전은 최근 대내외 환경변

화에 대응해 '고객이 먼저 찾는 농생명·바이오 혁신성장 전문 파트너'로 농생명식품 및 그린바이오 융복합 분야의 기술 융복합을 통한 산업화 촉진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공 실현하고, 지역 산업 거점기관으로써 산·학·연·관 유관기관 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동수 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전북 농생명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왔으며, 지금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을 있게 해 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새롭게 제시한 2030비전을 기반으로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산업 혁신 성장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더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포디에움 II'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디지털소계층을 돕는 비대면(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전용 공익형 상품 NH포디에움 II를 출시하고, 내년 2월 26일까지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NH포디에움 II는 지난 4월 출시된 NH포디에움에 이어 디지털 정보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휴먼뱅크'의 구현을 위해 기획된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고, 100만 원 이상 3억원 이내 원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최근 1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적립식·저차식 예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0.1%p, 가입 시점에 봉사활동 관련 마케팅 수신 동의시 0.1%p, 오픈뱅킹 이체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0.15%p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연 1.05%(지난달 28일 기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3천원 원 한도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B 어린이 스포츠 클럽 실시

(재)전북농협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달 28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지역아동센터 및 호성보육원 아동 60여명을 초청해 'JB 어린이 스포츠 클럽'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4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덕진지역 아동센터, 해남지역아동센터, 호성보육원 아동들이 각 센터의 인솔 선생님과 함께 연두테니스 아카데미에 방문하여 테니스의 기본기부터 수준별 감속구 경기, 미니게임 등을 진행했으며, 아카데미 강사들이 1대1 감속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리aket을 후원해 참가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지부, 자봉센터와 협약

농협중앙회 남원지부(지부장 박노현)는 2일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와 도농교류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내 농업의 실의증진과 농촌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협력분야는 도농교류와 농촌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협력,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연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외 기업에 새만금 투자유치 본격 가동

새만금개발공사·개발청, 상하이 일렉트릭 외 5개 기업과 협의 중국 국가급 엔청 경제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공사는 엔청시 개발담당기인 중국 국가급 엔청 경제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한국-중소 기업인 협력교류회(이하 협력교류회)와 제2회 한-중 무역투자박람회(이하 투자박람회)에 초청을 받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중모, 이하 개발청) 관계자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중국 장쑤성 엔청시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 간 최대 교역 투자지역 중 하나인 장쑤성에 '산업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자'라는 주제로 한국과 중국 등 약 300여 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석했다.

우정중 장쑤성 성장과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등에 이어 연사로 참석한 강팔문 사장은 한중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기업과 공동사업으로 제2, 3의 수변도시 조성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공사는 엔청시 개발담당기인 중국 국가급 엔청 경제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수변도시 내 한중물류단지 조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단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협력 관계 구축, 한중 투자유치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개발청 교류협력과 이범과장도 협력 교류회 발표자로 참석하여 새만금의 투자여건과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형 뉴딜, 스마트 그린산단, 한중산업 협력단지 등 새만금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협력교류회와 투자박람회 참석 이외에도 중국 내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의 투자상담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사와 개발청은 엔청시 정부의 협조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새만금지역 수변도시 공동개발 참여와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관심이 있는 6개 해외기업들과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에너지발전과 그린수소, 수상태양광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상하이 일렉트릭그룹(Shanghai Electric Group), 존 코커렐(John Cockerill, 벨기에), 선그로우(Sungrow)와 새만금 그린에너지 사업 참여와 공장설립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새만금 매립공사에 관심이 많은 중국 정부기업인 중국국건(中國交建, CCCC)과 중국능건(中國能建, CEEC)에 제2, 3의 수변도시 조성을 제안하고, 씨엔씨취그르(CNCG)와 수변도시 내 전자상거래 단지 구축 및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 협의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투자상담에 참여했던 개발청 교류협력과 이범 과장은 "협력교류회 행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앞으로 엔타이, 후이저우 등 새만금지역과 경제교류가 있는 중국 정부와 함께는 투자유치로 발전시켜 나아가자"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은 "공사 설립 초기에는 해외에 홍보할 상품이 없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지역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장쑤성, 엔청시 정부의 행사 참석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홍보하고 6개 해외 기업과 실질적인 투자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각지에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상담을 위해 엔청까지 찾아온 것은 새만금에 대한 중국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투자결실이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바이오기업 등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약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황정환)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과 바이오기업, 재배 농가, 한국바이오협회 등과 2일 aT센터(서울 서초구)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해 '생물 소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재배농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는 동우양제약·바이루트, 메가코스, 포르르 등 3개 바이오기업과 영양탄산작목반, 미

래통상, 병농농업 등 3개 재배 농가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기업은 국내 재배작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과 장기적 이용 방안을 찾고, 재배 농가는 단상, 병농, 새싹삼 등 국내 재배종의 생물 소재가 표준화된 품질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국내 재배종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국내 재배 농가 현황을 공유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협조하기

"조달행정 실현, 혁신의 자세 필요"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취임 혁신제품 전략적 구매 강화 형식적 제도 운영 탈피 등 제시



후 70년의 발전된 조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변화와 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구성원간 수평적·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조달업체·수요기관과의 소통 ▲현장 중심의 조달행정 추진 등을 당부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행사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등과 세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군포갑)과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를 거쳤다.

김 청장은 국가재정분야의 전문가로 행정부·학계·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공공혁신조달, 차세대 나라장터 등 주요 조달혁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김윤상 기자

제36대 조달청장으로 김정우 청장이 2일 부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취임사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취임사에서 김 청장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조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달행정 방향을 밝히면서, ▲회차 중심의 구매방식에서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체계 마련 ▲일반 상품 중심의 구매에서 혁신제품의 전략적 구매 강화 ▲가격적·형식적 조달제도 운영을 탈피해 기회·과정·결과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효율성·경제적 가치 중심의 조달에서 사회적·환경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 등 4가지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상생·협력의 조달환경 조성 ▲디지털 우선의 조달정책 ▲불합리한 조달규제 혁파 등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조달직원들에게 "지난 70여 년 간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

전북형 '디지털 뉴딜' 실현 위해

경진원,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사업 선정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이 화두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온라인 화상회의실을 구축한다.

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확장형)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은 전국 5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국비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공고에서 7개소가 신청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지역이 선정됐다.

이에 경진원은 본관 건물을 활용한 확장형 화상회의실을 구축한다. 1층에는 개별 온라인 상담을 위한 상담부스 10개와 방문설비, 촬영장비 등이 구축된 개인방송실이 설치되며, 2층에는 IR·IPO·창업경진대회, 평가·교육 등 이 가능하도록 통역실과 방송실, 무대 등을 설치하여 다목적성을 구축하고, 3층에는 국제회의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의테이블과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확장형 화상회의실은 바이어 발굴과 화상상담 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12월 말까지 구축하여, 신청 예약을 통해 사용할 계획이다. 경진원은 화상회의실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회 운영사업, 마케팅콘텐츠 제작·송출 지원사업, 창업대전 및 경진대회 등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확장형) 구축사업 선발은 전라북도 '일팀(ONE-TEAM)'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주무부처인 전북도와 경진원은 물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만들어 낸 쾌거이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물심양면 협조가 어우러져, 전북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화상회의실 시설을 경진원에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윤상 기자

스포츠업계 지원 위한 실내체육시설 활성화

신협중앙회-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모션 실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신협 체크카드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연계해 진행하는 실내체육시설 활성화 프로모션을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카드 이용객은 실내체육시설에서 신협 체크카드를 포함한 BC계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8만 원 이상 누적 결제 시 3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캐시백은 오는 12월 15일에 사용 카드사 계좌(8만 원 달성시점)로 지급될 예정이다. 프로모션 실적 적용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http://spobiz.kspo.or.kr) '실내 민간체육시설(캐시백 대상) 조회' 팝업 게시물을 통해 검색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활성화 프로모션은 신협홈페이지(www.cu.co.kr) 및 신협 온(온)뱅크,페이북(payment)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신협은 2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이후 사용분부터 결제액으로 누적 포함된다. 신청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 이용객들을 위해 가까운 신협 창구 방문 시 프로모션 신청접수를 직접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 결제내역은 페이북(paymen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캐시백 3만원은 신청순 지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소진 시 프로모션이 사전 마감될 수 있다. 프로모션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협홈페이지(www.cu.c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